

# 벌써 한여름 더위... 전남 농심 이상고온 '시름'

### 완도 30도·보성 30.3도 5월 일최고기온 경신... 여수도 72년만에 젖은 비·패이른 더위에 7551농가 1868ha 벌마늘 피해 50억 손해 6월 평년보다 높을 확률 50%...7월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40%

최근 광주·전남 지역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에는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민들은 벌써부터 올 여름나기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기온상승과 잦은 강수로 인해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계속되자 전남지역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과기원)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기록했고, 담양 30.5도, 곡성과 화순 30.1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30도에 육박했다. 광주도심에서는 반소매를 입은

시민들이 연신 손부채질을 했고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챙겨 들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과 구름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며 높은 일사량 탓에 한낮 더위가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초여름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전남 23일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상되고 자외선 지수 또한 '높음'에서 '매우높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20일에는 여수에는 낮최고기온 28.8도를 기록해 지난 1952년 5월 14일(28.3도) 이후 72년 만에 5월 일최고기온 극값(최대치)을 경신했다.

이외에도 보성은 30.3도, 강진은 30.1도, 완도는 30도를 기록하며 일최고기온 최고극값을 갈아치웠다. 지난 4월 역시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15.3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4월이었다. 평년보다 2.8도 높았고, 1998년 15.1도를 26년 만에 경신한 기록이다. 기상청은 "이동성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맑은 날씨로 햇볕을 많이 받았고,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의 영향으로 높은 기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올해 봄엔 비 또한 예년보다 자주, 강하게 내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월 광주·전남 강수량은 149.0mm로 역대 13위를 기록하며 평년(80.5~119.2mm)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 지난 5일에는 전남에 평균 100.7mm의 비가 내렸고, 광양과 진도는 각각 198.6mm, 112.8mm의 비가 내리며 5월 일강수량 극값을 경신했다. 1723.1ha

의 농경지에서 피해도 발생했다. 전남지역 농경지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비정상적인 2차 생장으로 마늘이 자랄하게 갈라지는 현상인 '벌마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마늘은 보통 6~7쪽으로 성장하지만, 고온과 잦은 비로 생장시기 장애를 입으면 최대 20쪽까지 갈라져 상품성을 잃게 되는데 이를 '벌마늘'이라고 부른다. 현재까지 전남지역에 신고된 벌마늘 피해는 7551농가, 1868ha로, 피해액이 50억여원에 달한다. 문제는 올해 본격적인 여름시기에는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엘니뇨가 중립 상태로 접어들긴 하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식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여름까지는 수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지난 2018년 맹위를 떨쳤던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강한 집중호우와 태풍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3개월 예보를 통해 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월도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40%로 내다봤다. 광주·전남의 6월과 7월 평년(1991~2021년) 평균기온은 각각 22.7도, 25도였다. 6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21.2~21.8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남쪽을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월강수량 또한 평년(118.7~213.9mm)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7월 역시 북태평양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24.2~25.6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기온을 보이며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년(206.5~279.1mm)와 비슷하거나 많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한낮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다 일요일인 26일 비가 내리며 더위가 한 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호남예술제 경연 열기 제69회 호남예술제 초등부 미술·작문 경연이 22일 광주패밀리랜드와 우치동물원 일원에서 열렸다. 경연에 참여한 8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신록이 우거진 동물원 나무 그늘 아래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짓기를 하고 있다. <관련화보 11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장흥 모 중학교서 폐렴환자 집단 발생

장흥의 한 중학교에서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장흥보건소와 장흥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1학년 학생 10명이 폐렴 증상을 보였다. 학교 측은 지난 17일 신입생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했고 일부 학생에게서 폐렴 증상 결과 나와 20일 교육청과 보건소에 알렸다. 당시 5명의 학생이 폐렴으로 확진 돼 입원했으나 현재는 10명으로 늘어 8명이 입원, 2명이 재

택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위독한 환자는 없지만 학교 측은 추가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당 학생들의 등교 중지를 결정했다. 장흥보건소는 학생들을 상대로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폐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인 폐렴은 호흡 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환자의 기침과 가래 등에 의해 공기 중으로 퍼져 전염될 수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멸종위기생물 '석곡'·'복주머니난' 지리산서 개화



지리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석곡' (사진)과 '복주머니난'의 개화가 확인됐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22일 석곡과 복주머니난이 지리산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인 노고단과 피아골 일원에서 개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복주머니난은 지난 5월 16일 이상 기후로 노고단 일원에 내린 눈으로 인해 냉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곡은 바위나 나무 위에 붙어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상록성 난초로, 5~6월 흰색이나 분홍색 꽃을 피운다. 꽃 모양이 주머니를 연상시키는 분홍색 꽃을 피우는 복주머니난은 서식지 파괴와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2012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지정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시끌시끌' 광주 북구의회 왜 이리나

### 사무국 직원들, 의장 갑질 신고 뒤 취소...사무국장 취임 4개월만에 사표

광주시 북구의회가 갑질의혹을 사고 사무국장 취임 4개월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난맥을 보이고 있다. 22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공용 북구의회 사무국장 이남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 취임 이후 4개월만이다. 사임의 배경은 표면적으로 북구의회 의장 비서실장 직급을 현 6급에서 5급(사무관)으로 상향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취임하면서 직급상향을 3~4개월

안에 진행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북구의회는 지난해 1월부터 의장 비서실장 직급 상향을 꾸준히 북구에 요청했으나 이점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사임의 배경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 등이 작용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지난 9일 광주 북구의원, 사무국 직원 등은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오찬에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 사무국장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 등은 미 참석 직원들에 대한 징계절차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맞서 북구의회 사무국 직원 6명은 공 사무국장 김 의장 등을 북구의회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일단, 미참석 직원들은 다른 직원 모친상 조문으로 인해 빠진 것이 확인되자 김 의장 등이 사과하면서 조사신정도 철회되는 등 사건이 마무리 됐다. 또 지난 3월 기대서 북구원에 대한 비판 글이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자 기 의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끝난 공무원이 최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공 사무국장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

## 광주 서구 상가 화장실서 영아 시신 발견

광주시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광주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유기된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아는 태어난 직후 변기 내부에 유기된 것

로 추정되며, 하루 이상 지나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상가 관리사무소 관리원이 시신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상가 CCTV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축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달러,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지정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